제35호(2012.11.13)

2012년 김장 채소 수급 전망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1. 가을배추·무 생산 전망 ····· 3
2. 소비자 가구의 김장 의향 ····· 4
3. 주요 김장채소의 출하와 가격 전망 ····· 13
4. 시사점 ·····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박기환 연구위원 02-3299-4331 kihwan@krei.re.kr
내용 문의: 서대석 부연구위원 02-3299-4260 dssuh@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금년 김장 주재료인 가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각각 6%, 12% 감소하였음. 배추는 작황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5% 정도 적지만, 무는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 결과,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구 비중이 52.7%로 작년의 55.7%에 비해 3%p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음. '친지 또는 지인'을 통해 김장을 조달하는 가구 비중은 36.5%로 작년 35.9%보다 다소 증가, 시판김치 구입 가구 비중은 10.8%로 작년의 8.3%보다 증가할 것으로 파악됨. 4인 가족 기준 김장배추 구입 포기수는 22포기로 작년의 25.1포기보다 3포기 적고, 금년에 구입할 무도 9.3개로 작년의 9.8개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건고추 구입의향은 작년보다 1.7근 적으나 마늘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져올 김장김치 포기수는 17.4포기로 작년의 23포기보다 5.6포기 적으나 제조김치 구매량은 평균 8.7kg으로 작년 구매량 8.8kg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금년 소비자의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김장배추의 형태별로는 김장 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을 위해 '절임배추' 선호도가 작년보다 증가함. 소비자가 김장을 담그는 시기는 작년보다 늦춰 12월 상순에 담그는 가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배추, 무, 고추 등의 주요 김장채소 출하량이 평년보다 적어 김장철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가을배추와 무는 작년 출하기 가격 하락과 정식기 태풍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가격이 높고, 고추와 마늘은 작년보다는 가격이 낮으나 평년보다는 높고 10월 평균 가격 대비 약보합세가 전망됨.

정책적으로 기상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김장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기상 및 농업관측 강화, 기상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금년의 경우 정부 비축량을 늘려 주요 김장시기에 출하 필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농가단위에서의 시설 및 기술 보급이 요구되며, 절임배추 등 채소가공품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가을배추·무 생산 전망

□ 금년 가을배추·무 생산량 평년보다 각각 5%, 20% 감소

○ 2012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408ha로 작년보다 23%, 평년보다 6% 감소하였고, 10월 하순 현재 작황은 비교적 양호하여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135만 톤으로 생산량이 많았던 작년보다 29%, 평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2012년 가을배추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2년		13,408	10,068	1,349,917
2011년		17,326	10,948	1,896,850
평 년		14,232	10,014	1,425,192
증감률	작년 대비	-22.6	-8.0	-28.8
	평년 대비	-5.8	0.5	-5.3

자료: 통계청, 2012년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2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6,826ha로 작년보다 30%, 평년보다 15% 감소하여 역대 최소면적임. 파종시기 지연과 기상여건으로 발아율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낮아 현재 작황은 평년보다 6% 적을 것으로 추정됨.

- 금년 가을무 생산량은 46만 톤으로 생산량이 많았던 작년보다 36%, 평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김치제조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선호도가 높은 외대무 재배면적 감소폭이 크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다발무 재배면적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2012년 가을무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2년		6,826	6,701	457,410
2011년		9,748	7,354	716,868
평 년		8,064	7,102	572,705
증감률	작년 대비	-30.0	-8.9	-36.2
	평년 대비	-15.4	-5.6	-20.1

자료: 통계청, 2012년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소비자 가구의 김장 의향

2.1. 조사 개요

○ 2012년 김장 수요 조사
- 조사 기간: 2012년 10월 25～10월 30일(6일간)
-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1,000명
- 조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3.69%(95% 신뢰 수준)

○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응답자가 426명(60.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남 161명(22.8%), 호남 51명(7.2%), 충청 50명(7.1%)순
-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26.4%, 40대 45%, 50대 25.2%, 60대 이상은 3.4%

2.2. 조사 결과

□ **금년 김장 의향조사 결과 소비자의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조사**

○ 김장을 소비자가 직접 담는 가구 비중과 배추 포기수는 작년보다 줄고,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져다 먹는 비중과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가. 소비자 가구의 김장김치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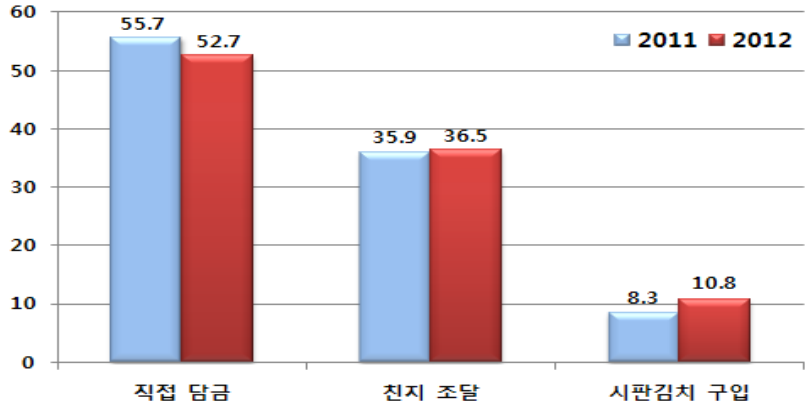
□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와 '친지나 지인을 통한 조달' 비중은 작년보다 감소,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증가**

○ 2012년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 비중은 전체의 52.7%로 2011년 55.7%에 비해 3%p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지인이나 친지'를 통해 김장김치를 조달하는 가구 비중은 36.5%로 2011년 35.9%에 비해 다소 증가

○ 시판김치 구입 의향은 작년 8.3%에서 금년에는 10.8%로 증가

그림 1. 김장김치의 조달방법별 가구 비중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직접 김장김치를 담기보다는 주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가져다 먹는 비중이 높고(55.2%), 50대 이상은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50대 이상의 가정은 대부분 직접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40대 가구는 53.0%의 가정이 직접 김장을 담글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임.

○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30대 이하는 13%, 40대 이상의 가구는 10%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령대별 김장김치의 조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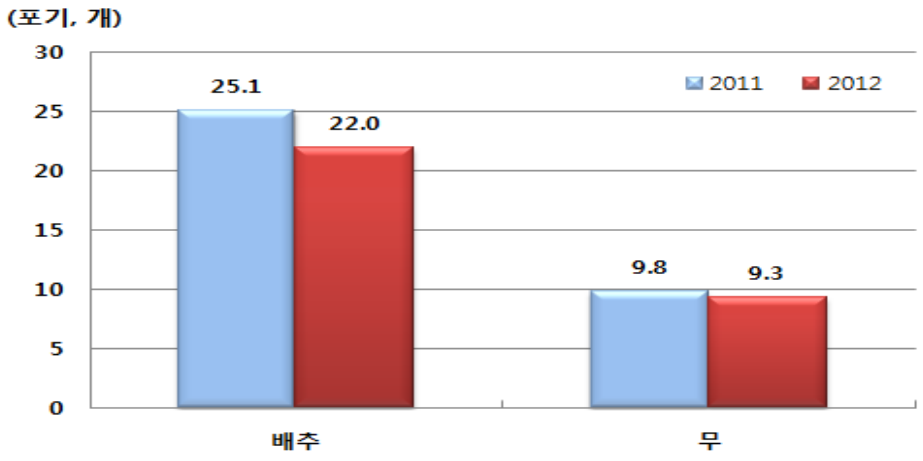
구 분	직접 담금	친지에게서 가져 옴	시판김치 구매
30대 이하	32.2	55.2	12.6
40대	53.0	37.1	9.9
50대	70.5	18.9	10.6
60대 이상	78.8	10.8	10.4
평 균	52.7	36.5	10.8

나. 김장용 채소류 구입 의향

□ 2012년 주요 김장채소 수요량 작년보다 다소 감소

○ 금년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한 4인 가족 기준 배추 구입 포기수는 22포기로 작년 25.1포기보다 3포기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에 구입할 무도 9.3개로 작년의 9.8개보다 가구당 0.5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그림 2. 김장 배추·무 구입 의향



○ 금년 김장을 대비해 구입하는 건고추는 7.2근으로 작년 구매량 8.9근 보다 1.7근 적으나, 마늘은 3.4kg으로 작년 구매량 3.6kg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김치를 가져올 경우 금년에는 17.4포기로 작년 23포기보다 5.6포기 줄일 것으로 조사되었음.

○ 김치를 친지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이유는 '맛이 좋고, 가족 입맛에 맞아서'가 3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가 19.3%, '원료 원산지를 알 수 있고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가 15.4%로 조사됨.

- 이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식품 안전성 문제의 중시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김치를 가져다 먹는 '부모님이나 친지(지인)'의 거주지는 53%가 도시지역이고, 47%는 농촌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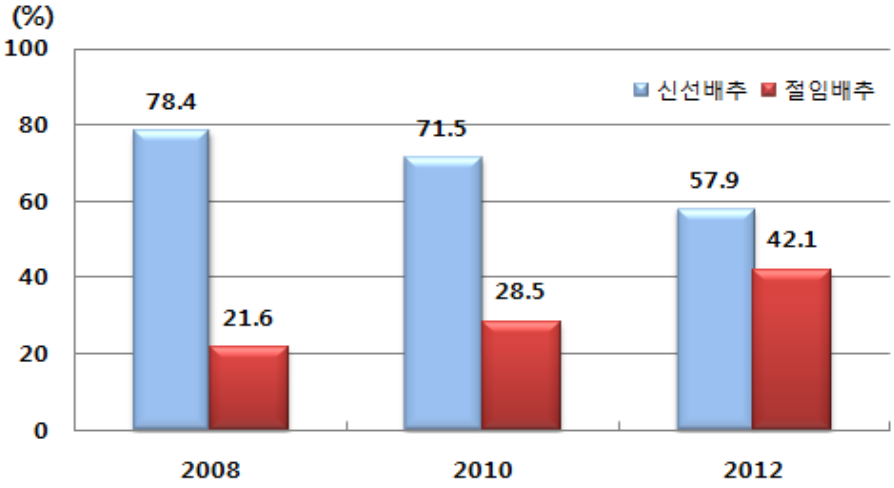
○ 제조김치를 구매할 가구의 평균 구매량은 8.7kg으로 작년 구매량 8.8kg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절임배추 선호도는 작년보다 3%p 증가

○ 김장김치 주재료인 배추의 형태별 선호도는 '신선배추'가 57.9%, '절임배추'가 42%로 '신선배추'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절임배추'의 선호도가 2008년 21.6%, 2010년 28.5%보다 크게 증가하고, 2011년(39.3%)보다는 3%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빠른 속도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음. 반면, '신선배추' 구입 비중은 2010년(71.5%)보다 14%p 감소함.

그림 3. 김장배추의 형태별 선호도



□ 김장철 신선배추를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은 약 40%

○ 김장철 신선배추를 구입하는 곳은 '인근재래 및 전통시장'이 29.1%, '도매시장'이 10.4%, '소매점'이 7%로 전통 유통경로를 통한 비중이

46.5%로 나타났음. ‘대형유통업체’ 비중은 12.2%로 나타나 전체의 58.7%가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구하는 비중은 26.9%,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9%, ‘직접 재배’가 3.5%로 나타나 약 40% 정도는 직접 산지를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신선배추는 품질을 직접 고를 수 있어 선호

○ ‘신선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이 좋은 배추를 직접 고를 수 있어서’가 4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져 옴(구매 포함)’이 21.7%, ‘안전성’이 14%로 나타나 신선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직접 고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대부분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신선배추의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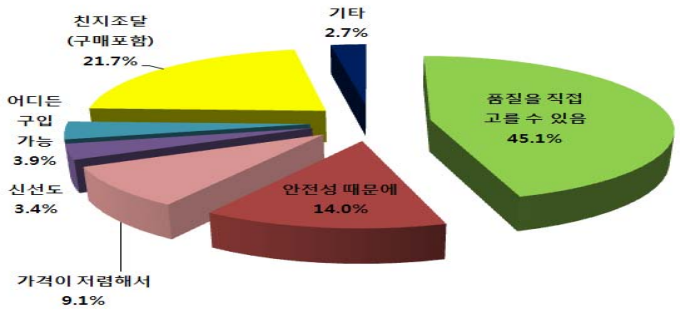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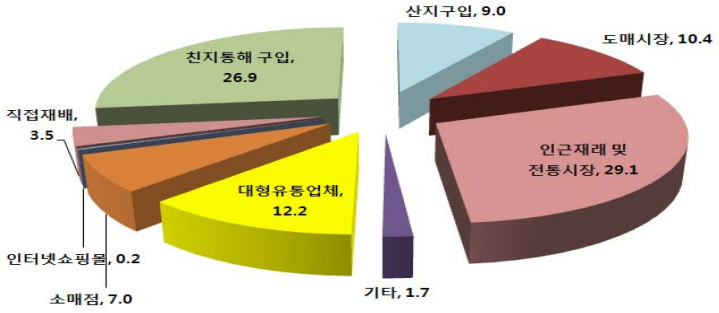


그림 5. 신선배추의 선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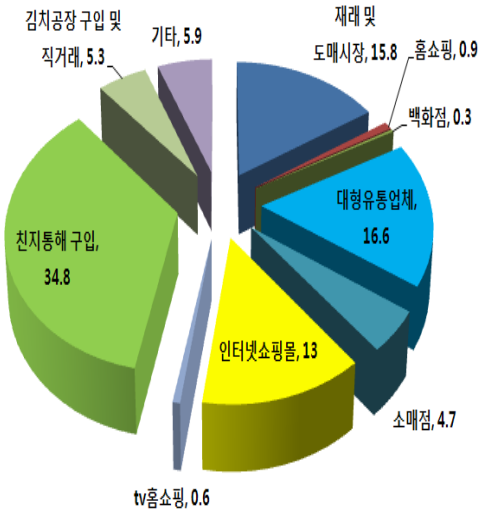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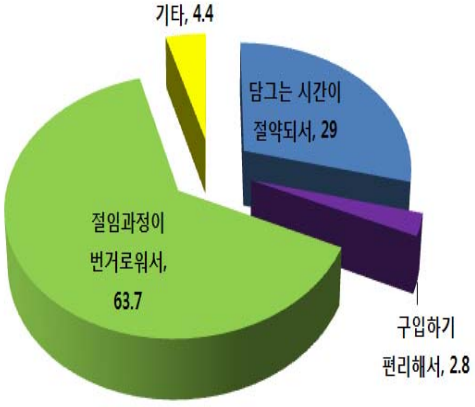
□ 절임배추 구입처 '재래시장'과 '친지, 지인' 비중 높고, 절임배추 선택 시 '절임과정의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 중시

○ 김장철 절임배추를 구입하는 경우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입'이 3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형유통업체'가 18.6%, '재래 및 도매시장'이 15.8%,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중도 13%로 조사됨.

○ 소비자가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로 '절임과정이 번거로워서'가 63.7%, '담그는 시간이 절약되서'가 29%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등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절이는 과정이 번거롭고 쓰레기를 유발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6. 절임배추의 구입처 및 선호 이유





□ 금년 절임배추 판매가격 10kg당 22,000원 내외

○ 금년 김장철 대형할인점의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아 10kg 기준 평균 20,000원~24,000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절임배추 판매단가는 계약물량과 계약시기 등에 따라 판매처 별로 차이가 있음.
- 지역농협의 김치공장에서 판매단가는 24,000원 내외로 배추 가격이 비쌌던 2010년과 비슷하고 2011년 판매가 20,500원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연간 가격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김장철 대형할인점의 절임배추 판매가격

단위: 원/10kg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450	28,045	13,318	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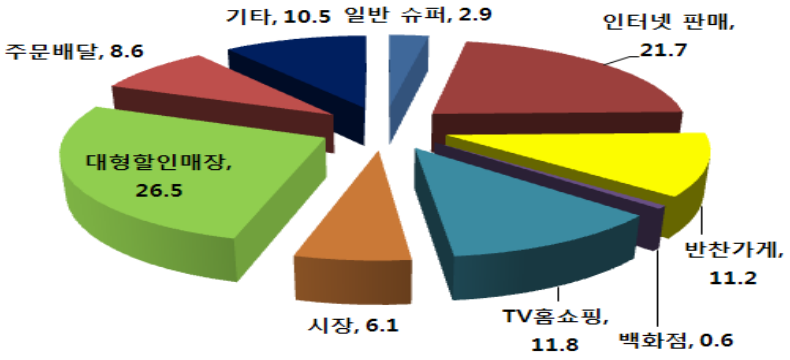
주: 2011년까지는 A업체 도매매입단가이고, 2012년은 주요 대형 할인점 평균가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 제조김치는 주로 대형할인매장을 통해 구매

○ 제조김치 구매금액은 4만 4천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제조김치의 주 구입처로 '대형할인매장'이 2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판매'가 21.7%, 'TV홈쇼핑'이 11.8%, '반찬가게'가 11.2%로 조사됨.

그림 7. 제조김치의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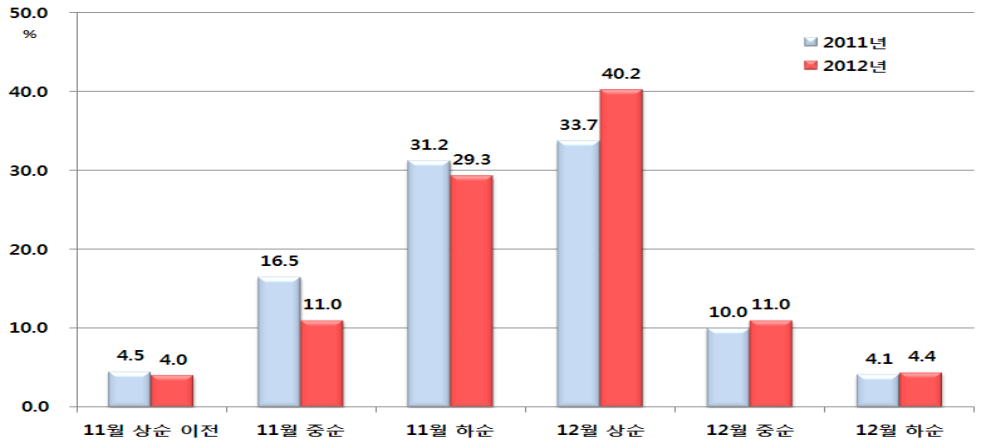


□ 올해 김장을 담그는 시기는 7~10일 늦추는 경향

○ 금년에는 12월 상순에 김장을 담고자 하는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작년이나 평년보다 1주일에서 10일 정도 늦추려고 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김장김치를 담그는 시기는 12월 상순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1월 하순이 29.3%임
- 작년이나 평년의 경우 11월 하순~12월 상순의 비중이 비교적 비슷하였으나 금년에는 다소 늦추는 경향이 있음.
- 이는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아 가격 추이를 지켜보려는 의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8. 금년과 작년 김장시기 비교



김장철 배추와 김치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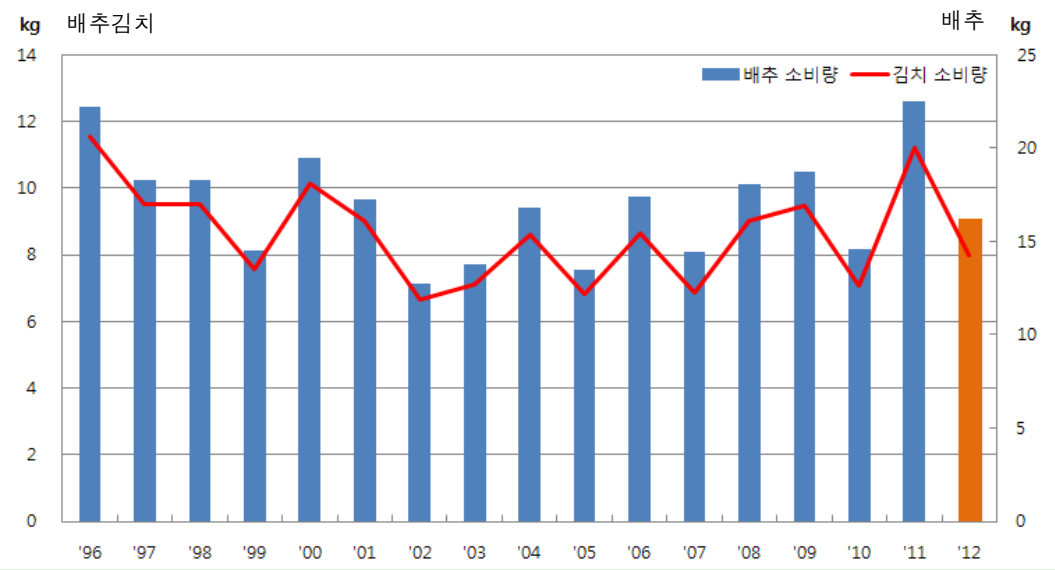
□ 김장철 김치용 배추 소비량은 90년대 후반 이후 연 2%씩 감소

○ 김장철(11～12월)에 국민 1인당 김치용 배추소비량은 최근 17kg(가을배추 한포기 3.5kg 기준 약 5포기)로 90년대 후반 20kg(5.7포기)보다 연 2%씩 감소하였음.

- 소비자 가구의 김장철 배추 소비 장기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기 어려운 수입산 배추와 김치를 제외하였음.

○ 이를 배추김치로 환산하면 90년대 후반 10kg 내외에서 최근에는 8.5kg 내외로 감소한 것임.

<김장철 김치용 배추와 배추김치 1인당 소비량 동향>



1) 김장철 김치용 배추 공급량은 가을배추 공급량(생산-수출)에서 감모량(농림부 적용치: 총공급(생산+수입)의 35%)을 감안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배추 소비량(농협 추정치: 8%)을 제외한 값임.

2) 김장철 배추김치 소비량=(김치용 배추 공급량에 수율 적용한 환산 김치 물량-김치수출량)/인구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3. 주요 김장채소의 출하와 가격 전망

□ 김장철 배추 출하량 평년보다 다소 감소하나 무는 20% 내외로 줄 듯

○ 김장철(11~12월) 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30% 내외 감소 전망
- 가을배추 정식 지연으로 출하시기도 다소 지연됨에 따라 11월 상·중순에는 출하량이 평년보다 10% 내외 감소하나 11월 하순 이후 출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 겨울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13% 감소 전망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4% 감소하고 정식 지연으로 일부 겨울배추 생육이 늦어져 금년 겨울배추 단수는 작년보다 14%, 평년보다 9% 감소할 전망
- 정식 지연과 비교적 작황이 나빠 12월에 출하될 월동배추는 출하량이 많았던 작년보다 25% 내외 적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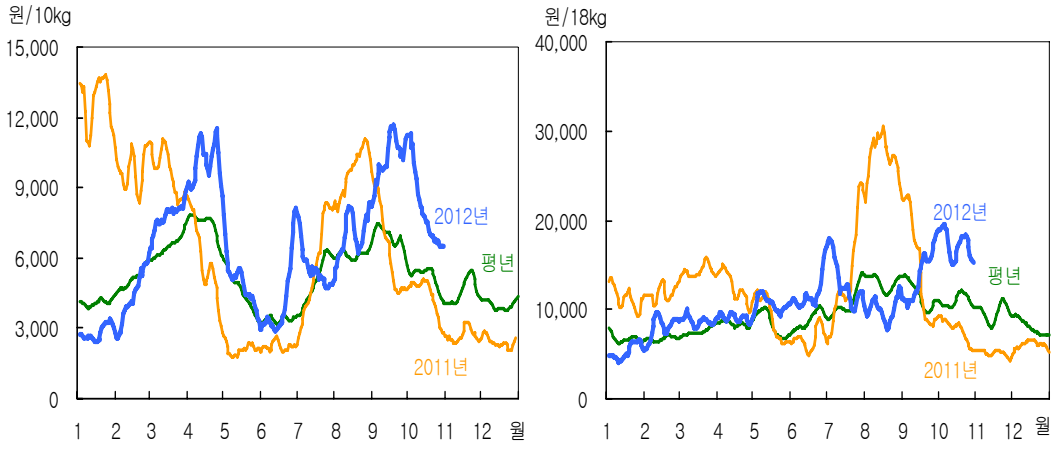
○ 가을무 생산량이 감소하여 11~12월 가을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30% 내외, 평년보다 20% 내외 감소 전망

○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6% 적으나 평년보다 20% 이상 증가 전망
- 월동무 재배면적은 태풍 피해가 큰 당근 등에서 전작된 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6%, 평년보다 28% 증가하였으나, 기상여건으로 작황이 좋지않아 단수는 작년보다 12%, 평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2월에 출하될 월동무는 출하량이 많았던 작년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김장철 배추 도매가격은 11월 하순까지는 평년보다 높으나 12월 상순 이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10월 평균 도매가격(상품, 7,960원/10kg(3포기 기준))보다는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무 도매가격은 물량이 적어 평년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9. 배추, 무 도매가격 동향

< 배추 > < 무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김장철 양념채소 가격 10월 평균가격 대비 약보합세 전망

○ 금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27~42% 많으나 평년보다는 2~13% 적은 9만 8천~11만 톤 전망

- 11~12월 전체 고추 수입량은 작년 대비 국산 고추 가격 약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25,600톤)보다 적을 전망
- 10월 말 기준 정부비축물량은 693톤이고, 추가로 1,000톤을 비축하여 김장철 매주 200톤씩 방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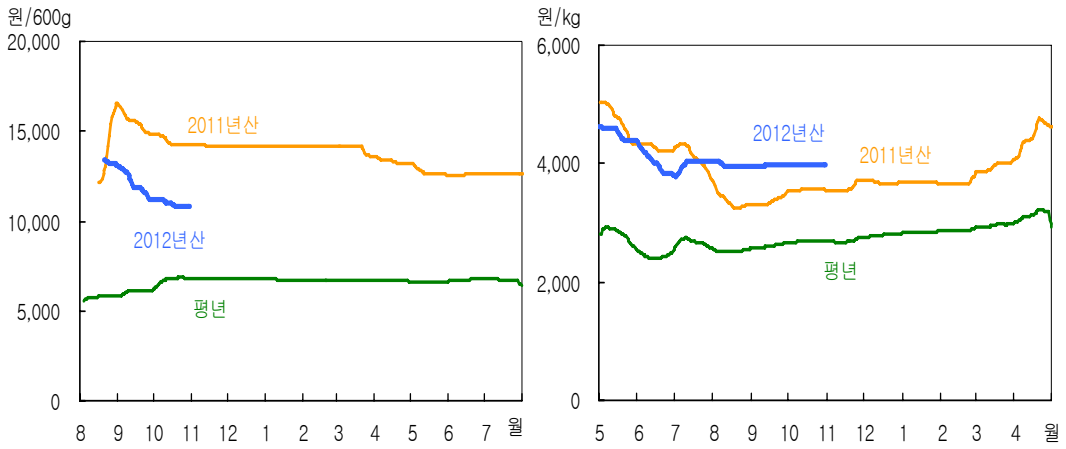
○ 김장철 건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600g을 기준으로 10월 평균가격(10,943원) 대비 약보합세 전망

○ 10월 말 현재 저장마늘 재고량이 작년 동월보다 19% 많으나 수입량이 적어 김장철 난지형 마늘 공급량 평년보다 다소 적을 전망

○ 김장철 마늘 도매가격은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상품을 기준으로 10월(3,990원/kg) 평균가격 수준의 약보합세 전망

그림 10. 건고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 건고추 > < 난지형 마늘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건고추 평년 가격은 2006년 8월~2011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이며, 난지형 마늘 평년 가격은 2007년 5월~2012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부의 김장채소 비축 물량 증가

○ 정부는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11월 10일까지 가을배추는 4천 톤 가을무는 1천 톤을 수매·비축하고,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급 여건에 따라 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임.

○ 건고추의 경우 10월 말 현재 정부비축물량은 693톤이고 국산 건고추는 김장철인 11~12월 중순에 1천 톤을 비축하여, 매주 200톤 씩 방출 계획

○ 마늘은 10월 말 현재 정부비축물량은 5,817톤(국산: 2,270톤, 수입산: 3,547톤)이고, 김장철인 11~12월 중순에 매주 600톤씩 방출할 계획임.

4. 시사점

○ 올해 소비자 가구의 김장 의향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주요 김장 채소류의 금년 생산량과 공급량이 평년에 비해 적으나, 정부비축량 등을 감안한 김장철 단기 출하량은 무를 제외하고 수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망

○ 배추와 무의 출하시기가 약 10일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들은 김장시기를 12월 상순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김장 늦춰 담그기 홍보와 캠페인 실시

○ 출하농가,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인은 저온과 서리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작물 생육 관리와 조기 출하 등 분산 출하를 통해 김장철 수요 물량에 대한 안정적 출하조절 유도

○ 정부 수매·비축 물량의 조기 확보와 수급 여건에 따른 적기 방출 필요
- 단기 작형인 가을배추·무는 정부 수매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수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 방출 필요
- 겨울배추와 월동무 중 조기 출하가능 물량에 대해 출하 조절 유도
- 양념 채소류의 경우 가격이 평년보다 다소 높으나 등락폭이 적고 안정적이므로 정부 개입 최소화

○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신선하고 안전한 김장채소 공급을 위해 김장채소 사전 계약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아파트 부녀회, 종교단체 등과 연계 강화
- 신선배추와 절임배추에 대해 사전 계약을 확대하여 가격 안정 유도
- 절임배추의 경우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겉잎(배추의 청 부분)의 포함 정도와 염도, 제조시기 등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절임배추는 '친지와 지인' 등 농가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새로운 농가의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음

○ 절임배추 등 1차 가공품에 대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적용범위 확대 필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신고제 등을 통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주요 채소류 전반에 걸쳐 정부와 민간이 저장하고 있는 비축량을 공유하고, 과부족분에 대해 상시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

- 고추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내산 건고추의 정부 비축물량을 늘리고, 배추·무와 같이 단기 순환 작형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상시 비축하여 릴레이출하조절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 수급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제35호 2012년 김장 채소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제30호 청과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35호
2012년 김장 채소 수급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1. 12
발　　행　2012. 11. 13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364-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